

농식품 규제개혁

성과사례 40선



성과사례 40선

Contents

1 농업의 6차산업화

- 01 진입도로 확보의무 개선으로 6차산업 활성화 소득증대 ↑ | 8
- 02 6차산업 발전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운용제도 구체화 | 9
- 03 개발제한구역 내 다양한 작물재배 허용 | 10
- 04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 규제 완화 | 11
- 05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체험마을사업 관련 시설 설치 허용 | 12
- 06 임산물 재배시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않도록 개선 | 13

2 농지효율화 및 농업 경쟁력 강화

- 07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 가능한 시설의 총부지 면적 제한 완화 | 15
- 08 농업진흥지역 내 가공·처리시설에서 사용가능한 주된 원료 범위 확대 | 16
- 09 농지를 농촌관광 목적으로 일시 사용을 위한 규제 완화 | 17
- 10 농지보유 면적에 관계없이 농지연금 가입 가능 | 18
- 11 종자업 등록의 시설기준 완화 | 19
- 12 비료원료로 농약성분 사용 허용 | 20
- 13 품종보호 출원시 감자 갈썩병 진단결과 제출의무 완화 | 21
- 14 정부보급종 종자 생산대행 자격 확대 | 22
- 15 농협 농기계 입찰제도 개선 | 23

3 식품산업 육성

- 16 소규모 탁·약주(하우스 막걸리) 생산판매 허용 | 25
- 17 전통주 인터넷 판매 범위 확대 | 26
- 18 우수식품인증기관의 문서 비치·보존기간 단축 | 27
- 19 전통식품 인증 현장평가 기업부담 완화 | 28
- 20 할랄인증 식품의 표시·광고 허용 | 29
- 21 와인 제조시 오크칩(바) 사용 허용 | 30
- 22 기타주류도 전통주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 추가 | 31

4 농식품유통
개선 및 수출
산업 활성화

- 23 농식품 수출원산지 증명서 간소화 | 33
- 24 농식품 인삼수출 활성화를 위한 포장 규제 개선 | 34
- 25 쌀 수출 추천제 폐지로 쌀 수출 활성화 | 35
- 26 수출입 식물 방제기술자 인정 요건 확대 | 36
- 27 수입 과일의 도착지 검역절차 간소화 | 37
- 28 꼭지 없는 수박 유통 가능 | 38
- 29 수입식품 검역시 서류검역 대상품목 확대 | 39
- 30 GAP 신속인증절차 도입 | 40
- 31 GAP 인증 시 토양·용수 성분 분석서 제출 의무 완화 | 41

5 농촌정주
여건 개선

- 32 부부농업인 자녀의 어린이집 우선입소 가능 | 43
- 33 “청년”도 선도농가에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개선 | 44
- 34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입주 기회 확대 | 45

6 축산업
활성화

- 35 동물용의약품의 제품명 심사기준 구체화 | 47
- 36 외국산 직구 상품 중 애완동물사료 검역 간소화 | 48
- 37 축산 종사자 의무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49
- 38 동물등록신청서(변경신청서) 법정양식 개정 | 50
- 39 비세척란에 대해서도 등급란 판정 허용 | 51
- 40 애완동물용 세정제에 대한 의약외품 규정 제외 | 52

| 농식품 규제개혁 |

성과사례 40선

1 농업의 6차산업화

- 01 진입도로 확보의무 개선으로 6차산업 활성화 소득증대 ↑
- 02 6차산업 발전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운용제도 구체화
- 03 개발제한구역 내 다양한 작물재배 허용
- 04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 규제 완화
- 05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체험마을사업 관련 시설 설치 허용
- 06 임산물 재배시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않도록 개선

1

농업의 6차산업화

진입도로 확보의무 개선으로 6차산업 활성화 소득증대 ↑

경기도 용인시의 농도원목장은 원유 생산 및 치즈만들기 체험을 실시하는 업체로, 인근 관광지와 연계하여 중국·동남아 등 국내외 방문객이 증가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판매할 유가공품을 생산하고자 하였으나 4m 진입



도로 확보의무로 가공공장 설립이 불가하였습니다. 금번 규제개혁으로 유제품 생산을 위한 공장을 건립하고 있으며, 완공 시 아이스크림, 치즈 등 제품 생산을 통하여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용인 농도원 목장 대표 황병익

기대효과

6차산업 추진 농업인 등 경영체 중 건축물 신·증축 계획이 있는 약 1만8천개 경영체 수혜



개선 전

농산물 가공·유통·판매시설 등 6차산업을 위한 사업장 설치 시, 폭 4m 이상의 진입도로 확보 의무화

개선 후

부지면적 2천㎡이하의 농업·어업·임업 관련 가공·유통·판매시설 등은 도로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

2

농업의 6차산업화

6차산업 발전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운용제도 구체화

전라북도 순창군은 소규모 전통 장류업체(42개)가 집적화되어 있지만 지역농업과 연계가 미미하고 식당 등 편의시설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 지정되면서 지구 내 숙박, 식당 시설 설치가 허용되면서 외식·체험·관광 등 6차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전북 순창 장류 지구

기대효과

행정간소화 및 규제 일괄개건으로 개별규제 완화 시너지 제고 및 지역특화산업 클러스터로 발전



개선 전

6차산업 추진시 인허가 절차를 각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므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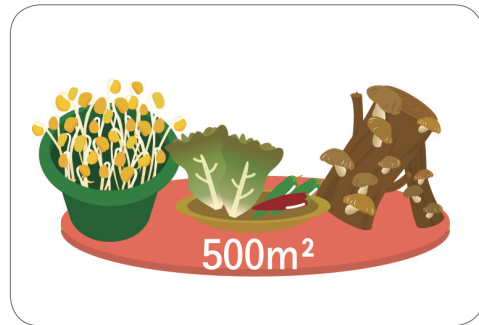
개선 후

지구내에서 행정절차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관광 등 일련의 규제를 종합적으로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다양한 작물재배 허용

B시에서 농사를 짓고 살던 L씨는 새
싹채소 열풍 등 소비자의 수요에 맞
춰 월빙채소 재배를 통한 소득 창출
을 하고 싶고, 건강에 관심이 높아진
시대적 변화에 따라 추후에는 친환경
농산물 등을 재배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콩나물과 버섯 재배만
가능하다고 하여 포기하였으나, 제도개선으로 월빙채소 등 다양한 작물
재배가 가능하게 되어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됩니다.



기대효과

개발제한구역 내 다양한 작물재배
가 가능하게 되어 농가소득 증대



개선 전

최근 새싹채소·허브 등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
증하고 있으나, 현재 개발제한구역내에는 콩나물, 버섯
등 한정된 농작물만 재배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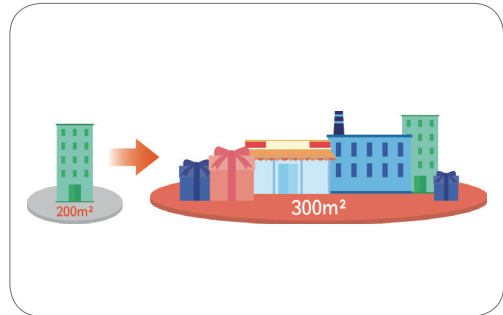
개선 후

품종별로 구분했던 재배사를 친환경 농업을 위한 작물 재배
가 가능토록 작물재배사로 통합하고, 규모 등도 균일 적용

* (현행) 콩나물 재배사 300m², 버섯 재배사 500m² 등 → (개선)
작물재배사 500m²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 규제 완화

A마을 운영위원회 사무장인 K씨는 산수유 특화마을로 시에서 지정 받아 주말 농장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간 기존시설을 활용해 겨우 운영해오고 있었지만, 가족단위 체험 등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어, 체험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일부 판매시설도 설치하고 싶었지만,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체험, 판매 등의 시설설치가 어렵다고 하여, 포기하였다. 그러나 제도개선으로 체험, 판매를 위한 시설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관광객 증가에 따른 농촌관광 활성화와 소득 증대가 기대됩니다.



기대효과

지역특산물의 판매, 체험을 위한 시설 허용 및 규모 확대로 농촌관광 활성화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



개선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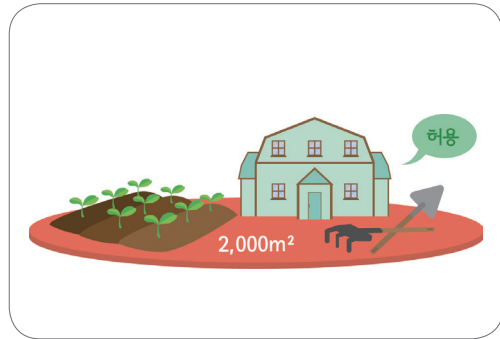
소비자 기호를 반영하여 다양한 수요가 창출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은 지역특산물의 소규모 가공 수준만 허용하고 있어 수요대응에 한계가 있고 농축산업의 경쟁력 약화 초래

개선 후

지역특산물의 가공, 판매, 체험 등을 위한 시설 허용 및 규모 확대(200→300m²), 마을공동으로 설치시 1,000m²까지 허용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체험마을 사업 관련 시설 설치 허용

B마을은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채택되어 도시민에게 생활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의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숙박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러나 B마을의 일정 구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체험관 및 숙박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였으나, 제도개선으로 일정규모 이하의 체험관,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통한 관광객 증가 및 마을 소득 증대가 기대됩니다.



기대효과

개발제한구역 내에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위한 체험관,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관광객 증가 및 마을 소득 증대



개선 전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으로 체험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체험관이나 숙박시설 및 음식점 설치 불가

*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농특산물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개선 후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시 사업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일정 규모(2,000m²) 이하의 체험관, 숙박시설 등을 설치 허용

임산물 재배시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않도록 개선

D는 산채·산약초 등을 소규모로 재배하여 판매를 하고 있으나, 임산물 재배시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여야 하고 면적이 5ha로 제한되고 기간이 3~10년으로 제한되어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임산물 재배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산지이용이

가능하게 제도개선이 되어 면적 및 기간 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다. 이를 통해 임산물의 장기간 재배가 가능하게 되어 농가 소득 향상 및 체험관광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기대효과

임산물 재배의 규모화와 장기간 재배가 가능하여 농가 소득 향상 및 체험관광 활성화



개선 전

산채·산약초 등 임산물 재배를 위해서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면적(5ha미만) 및 기간(3년~10년) 제한



개선 후

임산물 재배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산지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면적 및 기간 제한 미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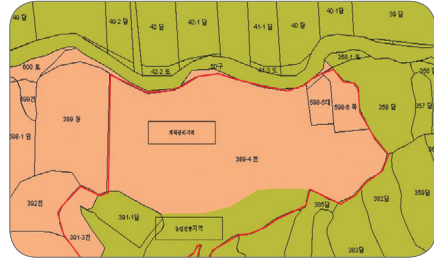


2 농지효율화 및 농업 경쟁력 강화

- 07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 가능한 시설의 총부지 면적 제한 완화
- 08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주된 원료 범위 확대
- 09 농지를 농촌관광 목적으로 일시 사용을 위한 규제 완화
- 10 농지보유 면적에 관계없이 농지연금 가입 가능
- 11 종자업 등록의 시설기준 완화
- 12 비료원료로 농약성분 사용 허용
- 13 품종보호 출원시 감자 갈썩병 진단결과 제출의무 완화
- 14 정부보급종 종자 생산대행 자격 확대
- 15 농협 농기계 입찰제도 개선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 가능한 시설의 총부지 면적 제한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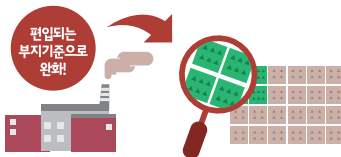
농업회사법인 N사는 농업진흥지역 내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 설립 가능여부를 문의한 결과 공장조성 총 면적이 27,173㎡, 이중 농업진흥지역에 7,254㎡가 포함되어 전체 공장조성 면적이 허용기준(15,000㎡)을 넘는다는 이유로 공장설립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 가능한 시설의 총부지 면적 제한이 '농업진흥지역 안에 편입되는 부지면적'으로 완화되면서, 농업진흥지역 허용면적을 넘지 않아 공장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 부지의 총면적 : 27,173㎡ ▷ 계획관리지역 : 19,919㎡
- ▷ 농업진흥지역 : 7,254㎡ ▶ 농업진흥지역 허용면적 : 15,000㎡
- ⇒ 설치 제한 ⇒ 제도개선시 설치 가능

기대효과

농업진흥지역 허용시설의 증설에 따라 투자 촉진, 경제 활성화



개선 전

농업진흥지역 내 농산물 가공·처리 허용시설의 면적을 '총부지 면적'으로 규정하여, 진흥지역 내 시설을 진흥지역 밖으로 증설한 경우에도 제한

개선 후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 가능한 시설의 총부지 면적 제한을 '농업진흥지역 안에 편입되는 부지면적'으로 완화

농업진흥지역 내 가공·처리시설에서 사용가능한 주된 원료 범위 확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국내산 쌀가루와 밀가루를 이용하여 누룽지와 약과 등을 생산하고 있는 ○○제과는 수주물량 증가로 기존 시설과 연접한 농업진흥지역으로 공장을 확장하고자 하였으나,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에 저촉되어 설치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도개선으로 다른 곳에서 생산된 쌀가루와 밀가루의 1차 가공식품을 활용하는 경우는 설치가 허용되어 공장 확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쌀가루 밀가루 가공시설

기대효과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 6차산업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



개선 전

해당 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생산한 농수산 가공품을 주된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처리시설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안에 설치 제한

개선 후

다른 곳에서 생산한 고춧가루, 쌀(밀)가루 등 1차 가공식품(본래 성질변화가 없을 정도의 탈곡·도정·제분 등)을 활용하는 경우 설치 허용

농지를 농촌관광 목적으로 일시 사용을 위한 규제 완화

A씨는 겨울에 마을축제 행사장 용도로 농지를 사용하려 하였는데, 단기간 사용임에도 불구하고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간소한 신고절차를 통해 농지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인허가절차 간소화에 따라 손쉽게 농지를 마을축제 행사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대효과

인·허가절차 간소화에 따른 토지 활용도 및 민원편의 제고



개선 전

농지를 농업생산 및 농지개량 외의 목적으로 일시사용하려는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개선 후

농한기에 단기간 사용, 농지훼손이 미미한 시설물을 단기간 설치 등의 경우에는 '간소한 신고절차'를 통해 타용도 일시사용 * (예시) 농한기 등에 마을축제 행사장, 썰매장 등

농지보유 면적에 관계없이 농지연금 가입 가능

충청남도 예산시에 거주하는 조00 씨(77세)는 총 3.52ha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농업소득만으로 병원비 등 노후생활자금을 충당할 수 없어 농지연금 가입을 원했음, 하지만 3ha 이상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의 경우 농지연금 가입이 불가하여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15년 3ha 이상 소유면적 제한 규정이 폐지됨으로써 소유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고, 매월 2,880,280원 연금을 수령하며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대효과

규제완화를 통해 농지연금 가입률을 제고하는 한편,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



개선 전

소유농지가 3ha를 초과한 경우는 경제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연금 가입을 제한

개선 후

규제의 중복성 해소 및 연금 가입을 제고를 위해 소유면적 3ha 초과시 가입 제한규정 폐지

종자업 등록의 시설기준 완화

종자업 등록을 하려는 K업체는 장비·포장을 임차하여 000작물 등에 대한 종자업을 하여 장비 구입 등으로 인한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기존에 과수나 채소 등 일부 작물에 비하여 불리했던 조건이 개선되어 업체 운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K업체 대표 0000



기대효과

작물별 시설기준의 형평성을 맞추고 해석이 모호한 기준개선을 통해 종자업 활성화 및 업무 효율성 증진



개선 전

채소·식량/과수 등 일부 작물만 임차를 허용하고 있어 작물간 형평성이 맞지 않고, 임차허용 여부 기재가 없는 작물인 경우 허용 여부 판단이 어려움



개선 후

종자업 시설기준을 개정하여 모든 작물에 대하여 장비와 포장의 임차를 허용

비료원료로 농약성분 사용 허용

농약제조업을 하고 있는 00업체는 농자재의 국내 소비감소 및 수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농자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비료·농약 혼합제 사용화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고, 이를 정부에서 받아



들여 비료·농약 혼합제의 경우 농약을 비료원료로 사용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비료 제조 시 농약성분을 포함한 제품을 개발·공급하여 매출액 증대 및 고령화된 농업인의 일손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농자재 기술개발 및 시장확대를 통해 농자재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00업체 부장 0000

기대효과

새로운 농자재 기술개발과 시장확대 등을 통해 산업활성화 및 농촌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문제 완화 및 영농비 절감 등을 통한 농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



개선 전

농자재의 국내 소비감소 및 수출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자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업계에서는 비료·농약 혼합제 상용화(商用化) 방안 마련 요구

개선 후

비료·농약 혼합제의 경우 농약을 비료원료로 사용하도록 허용

품종보호 출원시 감자 갈썩병 진단결과 제출의무 완화

감자 갈썩병 진단 시 품종당 30만원 정도의 검정비용이 발생하고, 검정에 알맞은 시료 준비 기간이 필요하는 등의 감자 품종보호 출원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자 출원 및 국가품종목록 등재신청 관련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국립종자원 양00주무관



기대효과

감자 품종보호를 출원 시 감자 갈썩병 진단을 의뢰할 수 있는 검정기관이 소수이고 비용 부담으로 초래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



개선 전

2008년 국내 민간회사에서 육성한 감자 품종에서 갈썩병 발생으로 감자 품종 출원시 갈썩병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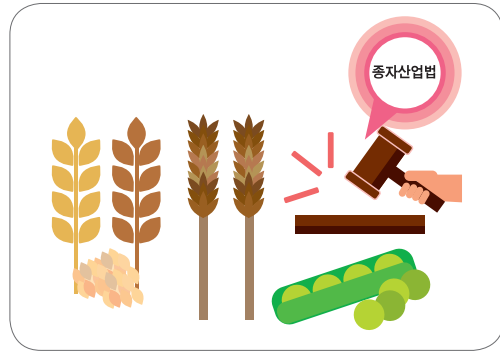
개선 후

2014년 감자 갈썩병 박멸 선언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정부보급종 종자 생산대행 자격 확대

H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정부보급종 종자의 생산대행을 할 계획으로 국립종자원에 신청하였으나 규정상 농업인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되어 규제신문고를 통하여 건의를 하였고, 농식품부에서 농촌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종자산업법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H 영농조합법인



기대효과

농업경영체에서 정부보급종 종자 생산으로 농촌의 일손부족 해소 및 고품질 정부보급종 생산 도모



개선 전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경영체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부보급종 종자의 생산 대행은 '농업인' 만 가능

* 정부보급종 : 벼, 보리, 콩

개선 후

농어업경영체(영농조합법인+농어업회사법인)에게 종자 생산 대행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종자산업법 개정

농협 농기계 입찰제도 개선

C는 농기계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업체인데, 농협에서 농기계 구매 시 최저가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업체간 무리한 가격 할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입찰품목 세분화, 공급업체 다양화 등 구매제도 개선이 추진되어, 저가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대효과

희망수량한도제를 통해 2개 이상 업체 선정으로 농가선호 기종 공급 가능 및 저가 경쟁으로 인한 품질저하·AS지연 등의 문제 해소



개선 전

농협에서 농기계 구매 시 최저가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업체간 무리한 가격 할인 등 부작용

개선 후

농업인의 농업경영비 감축을 위하여 현행 경쟁입찰 제도는 유지하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입찰품목 세분화, 공급업체 다양화 등 구매제도 개선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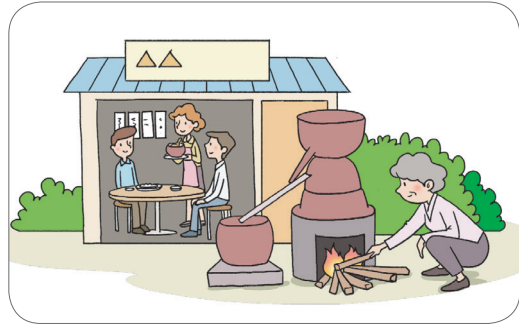
3

식품산업 육성

- 16 소규모 탁·약주(하우스 막걸리) 생산판매 허용
- 17 전통주 인터넷 판매 범위 확대
- 18 우수식품인증기관의 문서 비치·보존기간 단축
- 19 전통식품 인증 현장평가 기업부담 완화
- 20 할랄인증 식품의 표시·광고 허용
- 21 와인 제조시 오크칩(바) 사용허용
- 22 기타주류도 전통주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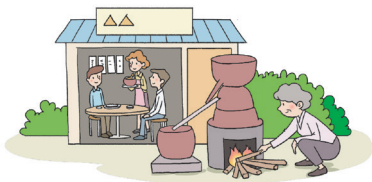
소규모 탁·약주(하우스 막걸리) 생산판매 허용

막걸리를 주종으로 하여 판매하고 있는 B씨는 최근 소규모로 막걸리를 직접 제조하고 싶어서 시설기준을 알아보았으나, 대규모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이번에 소규모 탁·약주 제조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소규모 시설을 마련하여 직접 음식점에서 막걸리를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되어 판매가 증대되고, 다양한 막걸리가 출시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대효과

전통주의 제조, 유통, 판매에 대한 규제 완화로 업체 부담 경감·제품 다양화·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판매 증대



개선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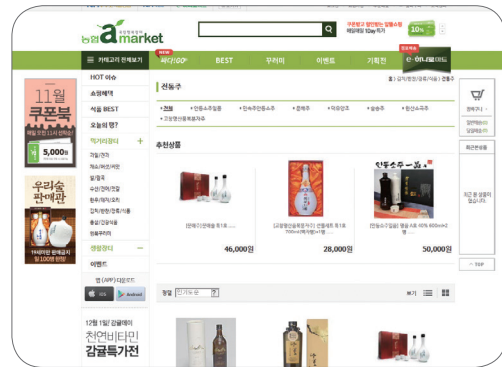
탁·약주는 생산과 판매가 동시에 가능한 제조시설 기준이 미비되어 있는 등에 따라 전통주산업 활성화를 저해

개선 후

소규모 탁·약주 제조면허 및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직접 음식점 등에서 다양한 탁·약주를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전통주 인터넷 판매 범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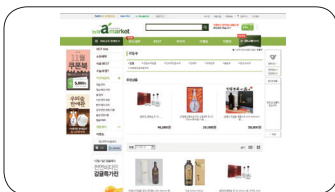
기존에는 전통주의 통신판매 창구가 제조자, 우체국, aT, 지자체로 한정되어 있어 전통주 업체에서 얻는 혜택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제도개선으로 전통주 인터넷 판매 범위가 전통주 제조자 설립단체 홈페이지, 농협 쇼핑몰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농협 쇼핑몰에 전통주 판매를 9월 개시하여 1,360만원의 판매액을 기록하는 등 전통주 판로 다양화 및 판매액 증대로 업체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전통주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농협 쇼핑몰 MD



농협 쇼핑몰

기대효과

영세한 전통주 업체가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인 유통판매망 확대를 통해 전통주 산업 활성화 및 국내산 농산물 사용 확대(쌀산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 탁·약주의 고급화로 다양한 소비자 취향 충족, 전통주와 음식의 결합을 통한 6차 산업화로 농가소득 증대



개선 전

통신판매 창구가 한정되어 있어 전통주 업체에서 얻는 혜택이 제한적

* '13년 연간 통신판매 금액 : 31억원, '12년 전통주 출고액 : 434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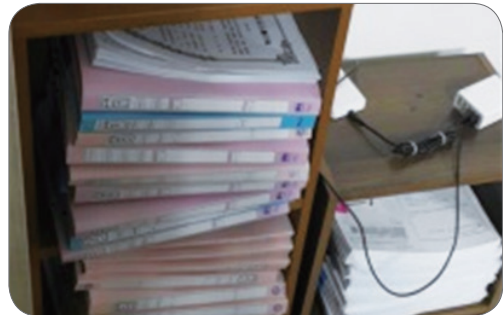
개선 후

전통주 인터넷 판매 범위가 전통주 제조자 설립단체 홈페이지, 농협 쇼핑몰까지 확대

우수식품인증기관의 문서 비치·보존기간 단축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하여 우수식품 인증기관에서는 관련문서를 5년 이상 비치·보존해야 했습니다. 관련 문서의 양도 많고, 보존에도 어려움이 있어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었으나,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개인과 동일하게 3년으로 조정되어 관련문서를 관리하는 인력과 비용의 절감이 가능할 것입니다.

- 우수식품인증업체 Y



기대효과

우수식품인증기관의 문서 비치·보존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관련 인력, 시설장비 등에 대한 인증기관의 부담 경감



개선 전

식품위생법 상 할랄인증 표시 관련 규정 미비로 식품업체 혼선, 할랄식품 부정유통 유발 등 할랄식품 산업 활성화 저해

개선 후

표시 관련 법규정 정비 및 할랄인증 식품의 인증 로고 표기·광고 허용

전통식품 인증 현장평가 기업부담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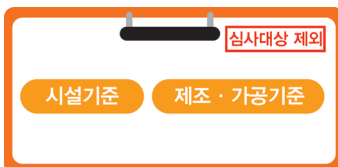
식품업체는 유사한 인증이 많고, 식품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시장에서 외면을 받아 높은 비용발생에도 인증을 받아왔습니다. 공통심사 면제 시 공장심사를 위한 평가비용, 제품심사를 위한 평가비용 및 평가준비 등을 위한 기업 인력 고용 비용 절감 등으로 가능 연 6억원의 비용이 되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국식품산업협회 K전무이사



기대효과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체가 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시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장심사 비용 절감 등 기업 부담 완화



개선 전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현장평가(공장심사 등)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한국산업표준(KS) 인증과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현장평가 항목이 유사함에도 이중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기업 부담

개선 후

현장평가 항목이 유사하므로 한국산업표준 인증업체가 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시 공장심사 생략이 가능하도록 함.

할랄인증 식품의 표시·광고 허용

D 업체는 라면 생산 업체로 할랄 라면 인증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무슬림에 홍보를 위해 할랄 라면에 인증을 표시하려 하였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인증 표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제도 개선



으로 인증 받은 내용의 제품에의 표시 및 광고가 가능하게 되었다. 국내 무슬림을 대상으로 한 시장확대로 매출액 증가가 기대됩니다.

기대효과

국내 할랄식품 산업 활성화 및 할랄식품 수출 확대

* 국내 무슬림(거주자 15만명, 관광객 70만명, '14년 기준)의 할랄식품 접근 기회 확대, 국내 할랄식품 수출업체의 원재료 확보 부담 완화



개선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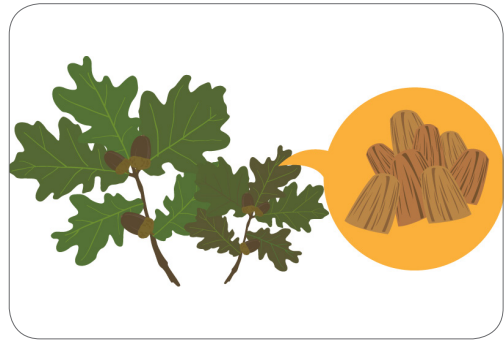
식품위생법 상 할랄인증 표시 관련 규정 미비로 식품업체 혼선, 할랄식품 부정유통 유발 등 할랄식품 산업 활성화 저해

개선 후

표시 관련 법규정 정비 및 할랄인증 식품의 인증 로고 표기·광고 허용

와인 제조시 오크칩(바) 사용 허용

예산사과와인은 사과와인을 제조하는 업체로 오크통을 사용하여 와인을 숙성시키고 있다. 최근 사과와인 수요가 증가하여 오크통을 추가 구입하려 하였으나, 오크통 하나당 백만원이 넘어서 추가 구입에 애로를 겪는 중이었다. 그러나 제도개선으로 오크통보다 저렴한 오크칩 및 오크바를 통해 와인 숙성을 할 수 있게 되어 추가 와인 수요 증가에 대응 할 수 있게 되었다.



기대효과

오크통 구매에 필요한 투자 비용이 낮아져 제품 원가 절감 및 와인 산업 활성화



개선 전

오크통의 가격(1백만원 내외)으로 와인제조 시 투자비용 부담으로 와인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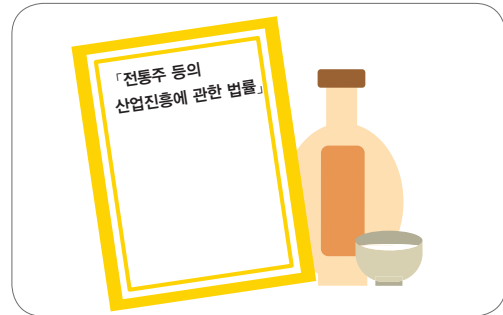


개선 후

오크통 대신 동일한 효과를 내는 오크칩·오크바를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기타주류도 전통주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 추가

A업체는 천연꿀을 활용하여 허니와인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이다. A업체에서 제조한 허니와인은 우리술 품평회에서 수상하는 등 인지도를 받고 있으나, 농식품부에서 진행하는 술 품질인증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아 소비자들 사이에 널리 홍보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제도개선을 통해 허니와인 등 기타주류도 술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제품홍보를 통한 판매 확대가 기대됩니다.



기대효과

기타주류도 '술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제품홍보를 통한 판매 확대 기대



개선 전

기타주류는 술 품질인증 대상 주종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주류도 우리술 품평회 대상 주종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술 품질인증 대상으로 추가 필요

개선 후

기타주류도 '술 품질인증' 대상 주종으로 추가하고, 기타주류에 대한 인증기준을 신설하여 술 품질인증제도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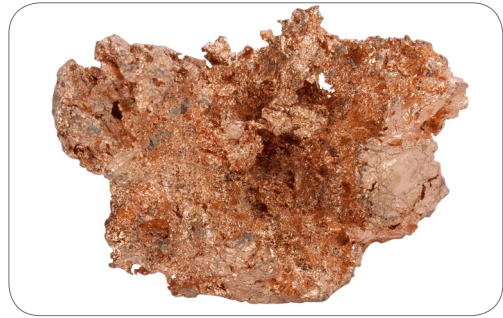


4 농식품 유통 개선 및 수출 산업활성화

- 23 농식품 수출 원산지 증명서 간소화
- 24 농식품 인삼수출 활성화를 위한 포장 규제 개선
- 25 쌀 수출 추천제 폐지로 쌀 수출 활성화
- 26 수출입 식물 방제기술자 인정 요건 확대
- 27 수입 과일의 도착지 검역절차 간소화
- 28 꼭지 없는 수박 유통 가능
- 29 수입식물 검역시 서류검역 대상품목 확대
- 30 GAP 신속인증절차 도입
- 31 GAP 인증 시 토양·용수 성분분석서 제출 의무 완화

농식품 수출 원산지 증명서 간소화

(주) 머쉬텍은 친환경 인증 동충하초를 생산하여 베트남에 수출하는 업체이다. 기존에는 동충하초를 수출하기 위해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농지 원부 등 까다로운 원산지 증명 및 검증절차를 이행해야 했다. 그러나 제도 개선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제출 시 추가 자료 제출이나 사후검증이 생략되어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친환경 인증 동충하초를 수출할 것이 기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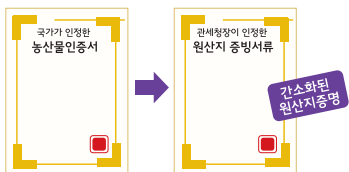


▲ 동충하초

기대효과

증빙서류 감축(5종 이상 → 1종) 및 사후검증 생략으로 수출 건당 40시간/50만원의 비용절감 기대

* 친환경·GAP·이력추적제 및 지리적 표시제 인증을 받은 약 32만 농가가 수혜 대상으로 예상



개선 전

농업인이 FTA를 활용하여 농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까다로운 원산지 증명 및 검증절차를 이행해야 함에 따라 수출 제약



개선 후

국가가 인증하는 '농산물인증(등록)서*' 를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 증빙서류'로 지정하여 원산지 증명 간소화에 따른 FTA 활용 확대

*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지리적표시등록' 4종의 서류에 대해 인정 조치

농식품 인삼수출 활성화를 위한 포장 규제 개선

C업체는 인삼 수출을 하는 업체로 기존의 인삼에 비해 낱개 포장을 하여 저렴하고 소비자 육안으로 인삼을 확인할 수 있는 포장을 하려 하였으나, 포장규격으로 습점·압착, 캔포장만 인정된다고 하여 자율성이 제한되었다. 그러나 이번의 제도 개선으로 기존 규격 외 낱개 보닐팩 포장이 인정되어, 인삼 수출이 증가되어 매출액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보닐팩 포장

기대효과

인삼류 포장규격 개선으로 인삼수출 활성화



개선 전

인삼류의 포장규격으로 습점·압착, 캔포장만 인정되어 업계 자율성 제한

* 인삼의 CODEX 세계 규격채택으로 의약품이 아닌 식품으로 수출하게 되는 계기로 활용

개선 후

인삼류의 포장규격으로 기존 규격 외 낱개 보닐팩 포장도 인정

* 예시: (기존) 습점·압착, 캔만 가능 → (개선) 기존 규격 외 낱개 보닐팩 등 허용

쌀 수출 추천제 폐지로 쌀 수출 활성화

관세화 유예 기간 동안 WTO 농업협정에 따른 의무이행 등을 위해 추천제를 통해 수출물량, 가격 등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도개선으로 쌀을 수출 추천품목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쌀 수출 추천제 폐지에 따라 3,300천불('14년9월)보다 7.5% 상승한 3543천불('15.9월)이 수출되는 등 추천제 폐지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쌀 값 하락 등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쌀 수출 절차 간소화, 가격 제한 등 규제 완화로 쌀 수출업체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우리 쌀의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할 것입니다. - 농수산물유통공사 H차장



▲ 쌀 선적

기대효과

미곡을 수출할 경우 미곡수출추천 신청 및 발급 추천서 관세청 제출 의무가 폐지되어, 미곡 수출업체의 행정편의 제고



개선 전

관세화 유예 기간동안 WTO 농업협정에 따른 의무 이행 등을 위해 추천제를 통해 수출물량, 가격 등을 제한

* '14년 기준 77개 업체 605건 신청(수출실적 1,992톤)

개선 후

수출 추천대상 양곡을 미곡으로 정한 규정을 삭제하고 미곡 수출 추천 물량 및 배정방식 등을 규정한 고시를 폐지하여 쌀 수출 시 추천이 없이도 수출가능

수출입 식물 방제기술자 인정 요건 확대

수출입 식물 방제업을 하려는 A업체는 식물방제업을 하기 위하여 소독천막 구비기준 충족을 위하여 소독천막 구입 가격을 알아본 결과 10,000㎡에 2,800만원이 소요되어 구입과 보관이 부담으로 작용하였으



나 소독천막 구비에 대한 기준이 7,000㎡으로 완화되어 소독천막 구입비용 중 840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대효과

방제기술자 자격제한을 기사에서 산업기사로 장벽을 낮춤으로 인력 고용효과 확대 및 업체 부담 완화



개선 전

방제기술자의 근무 연수 분포는 역삼각형으로 신규 방제기술자가 매우 적어 방제업체에서는 인력확보가 어렵고, 밀폐형 소독천막 10,00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함



개선 후

방제기술자 자격요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로 완화하고, 장비 중 소독천막도 7,000㎡ 보유로 완화

수입 과일의 도착지 검역절차 간소화

대만에서 생산된 풍강오렌지와 여지 생과실을 수입하는 O업체는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해서 도착지 검역을 실시하여 통관에 시간이 걸리고, 신선도가 하락하여 판매가격이 하락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소독 및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도착지 검역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어 업무 부담 경감과 수익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외국산 과일 수입업체 O



기대효과

대만산 풍강오렌지 및 여지 생과실의 검역시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통관 가능하고 수출입식물 검역수수 증가로 부족한 검역인력의 효율적 운용 가능



개선 전

대만에서 수입되는 풍강오렌지 및 여지 생과실은 국외생산지에서 검역을 받았지만 일반 화물과 동일하게 수입검역을 실시함으로써 추가 인력과 검역기간이 소요

개선 후

국외생산지검역을 실시하고 있는 대만산 풍강오렌지 및 여지 생과실의 도착검역 면제로 수입요건 간소화

꼭지 없는 수박 유통 가능

농협 수도권 유통센터(양재, 창동 등 6개소)를 중심으로 시범사업 실시하고, 수박 출하기인 5~8월에 농협 계통 매장, 대형마트(마트 3사), 도매시장 중 도매인 등 참여로 “꼭지없는 수박”

을 유통한 결과 유통업체는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농민은 일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고,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꼭지없는 수박 유통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기대효과

‘T-자’ 수박꼭지 유통관행을 바꿀 경우(꼭지를 1cm 정도로만 유지) 노동력 절감, 가치하락 방지 등으로 연간 344~627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



개선 전

수박은 다른 품목과 다르게 대부분 꼭지를 ‘T-자’ 모양으로 다듬어 유통하는데, 이는 유통·소비의 과정에서 수박의 신선도 등의 판단기준으로 꼭지상태를 활용

* ‘T-자’ 모양의 꼭지를 만드는데 3회의 가위질이 필요

개선 후

‘T-자’ 꼭지유통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수박 꼭지절단 유통활성화 방안」을 마련으로 수박꼭지 제거 후 유통

수입식물 검역시 서류검역 대상품목 확대

수입식물에 대한 병충해 검역 시 검역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현장검역을 하던 것을 서류검역을 실시하게 되어 검역처리 시간이 건별 약 14~23시간 단축단축되어 보다 신선한 제품을 고객에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검역절차 간소화로 검역인력의 업무 부담이 절감되어 전체적인 검역처리 시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수입업체 O



기대효과

서류검역 대상식물을 현행 218품목에서 225품목으로 확대 지정, 검역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수입식물 검역인력을 절감하는 한편, 검역기간 단축

검역신원증서 (수입)											
수출국명	30-1002043 (서원)	수출국명	대한민국	수출일자	2015-10-04	수입일자	2015-10-04	수출품명	대형꽃다발	수출량	100kg
수출업체	30000-481000001	수출업체	30000-481000001	수출업체	30000-481000001	수출업체	30000-481000001	수출업체	30000-481000001	수출업체	30000-481000001
수출품명	대형꽃다발	수출품명	대형꽃다발	수출품명	대형꽃다발	수출품명	대형꽃다발	수출품명	대형꽃다발	수출품명	대형꽃다발
수출품명	대형꽃다발	수출품명	대형꽃다발	수출품명	대형꽃다발	수출품명	대형꽃다발	수출품명	대형꽃다발	수출품명	대형꽃다발
수출품명	대형꽃다발	수출품명	대형꽃다발	수출품명	대형꽃다발	수출품명	대형꽃다발	수출품명	대형꽃다발	수출품명	대형꽃다발

개선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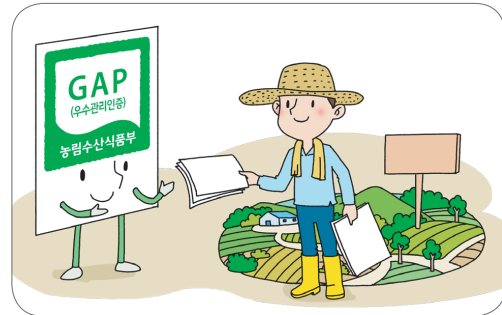
수입식물에 대한 병해충 검역은 위험도에 따라 서류, 현장, 실험실 정밀검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병해충 잠복 위험도가 낮은 218품목은 서류 검역 실시

개선 후

병해충 잠복 위험도가 낮은 생식물(7품목)에 대하여 서류 검역 대상 확대하여 실시

GAP 신속인증절차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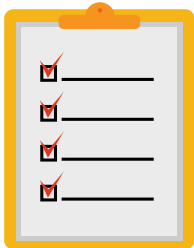
전체 품목을 기준으로 표준화된 위해요소관리계획서로 인하여 농업인이 개별품목에 적용하기가 어려웠고, 어려운 용어 및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GAP 인증을 기피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품목별 매뉴얼이 마련되면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작성 항목이 간소화되어 작성 시간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 GAP 인증기관 |

기대효과

인증서류 작성 간소화를 통한 GAP인증 확대 및 농업인의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작성 부담 경감



개선 전

GAP 인증을 받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위해요소관리계획서는 농업인이 작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개선 후

품목별 매뉴얼을 작성하여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작성항목 간소화 추진

GAP 인증 시 토양·용수 성분 분석서 제출 의무 완화

오염 우려가 없는 지역이나, 적합한 농업용수(저수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필지도 예외없이 4년마다 검사 실시하여 검사비용 소요되어 GAP 인증을 받는 농업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였으나, 농업기술센터나 농관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약 30만원 정도의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GAP 인증기관



기대효과

4년마다 소요되는 수질분석(230천원) 및 토양분석(77천원)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 절감



개선 전

GA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4년마다 1회이상 토양 중금속 분석, 수질분석 성적서를 보관하여야 함에 따라, 개별적으로 필요 없는 필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하는 비용과 노력이 소요



개선 후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관원의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토양과 수질이 적합한 경우에는 분석서 제출을 생략



- 32 부부농업인 자녀의 어린이집 우선입소 가능
- 33 “청년”도 선도농가에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개선
- 34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입주 기회 확대

부부농업인 자녀의 어린이집 우선입소 가능

경기도에서 하우스작물을 재배하는 김00씨 부부는 함께 농업에 종사하는 맞벌이 부부인데, 자녀가 어린이집에 입학할 때 맞벌이가 인정되지 않아 가까운 국공립 어린이집 대신 멀리 떨어져 있는 민간 어린이집에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번 규제

개혁으로 농업인부부도 맞벌이로 인정되어 자녀를 가까운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되었고, 부부는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대효과

농업인 자녀의 어린이집 우선입소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젊은 농업인의 농촌 정주여건 개선



개선 전

맞벌이인 경우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이나, 농업인의 경우에는 맞벌이임을 증명하는 방법이 없어 혜택을 받지 하는 상황

개선 후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등이 맞벌이 증명서류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이 개정

“청년”도 선도농가에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개선

기존에는 귀농·귀촌 5년이내인 경우만 지원하여 영농창업을 하려는 청년층이 ‘선도농가실습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기 어려워 농촌지역 조기적응이나 정착초기 안정적인 소득 창출이 어려웠으나, 40세 미만 청년에 대한 지원으로 “청년 영농창업”에 도움이 되고 농촌 일자리 창출의 효과 있을 것 입니다.

– 경북 김제 농업기술센터



기대효과

영농초기의 경험 미숙 등에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여 농촌지역의 조기 적응 및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



개선 전

작목재배기술 등을 현장실습교육으로 하는 '선도농가실습지원사업' 연수지원 대상은 “사업시행연도 기준 5년이내에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으로 한정

개선 후

선도농가실습지원사업의 연수지원 신청자격을 40세 미만 청년까지 확대하고, 40세 미만의 경우 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입주 기회 확대

금산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하려던 40대 L씨는 우선 입소 대상자가 39세 미만으로 제한되고, 체류기간이 1년으로 길어 입소기회를 찾기가 어려웠으나 '16년에 6개월 과정으로 입소를 할 수 있게 되어 귀농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충청남도 금산군 체류형창업지원센터 입소대상자 L씨

기대효과

입주기간 다양화와 우선 입주 대상 확대로 더 많은 귀농인이 교육과 정보제공을 통하여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개선 전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체류(교육)기간이 1년, 39세 이하 우선입주로 교육기회가 제한적으로 제공

* 체류형센터 운영 : ('15) 금산, ('16) 제천, 영주, 홍천, 구례

개선 후

센터 운영(교육)기간을 3·6개월 과정으로 다양화하고 우선 입주대상을 49세 이하로 완화



- 35 동물용의약품의 제품명 심사기준 구체화
- 36 외국산 직구 상품 중 애완동물사료 검역 간소화
- 37 축산 종사자 의무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38 동물등록신청서(변경신청서) 법정양식 개정
- 39 비세척란에 대해서도 등급란 판정 허용
- 40 애완동물용 세정제에 대한 의약외품 규정 제외

동물용의약품의 제품명 심사기준 구체화

이미 다른 업체에서 성분명인 ‘브롬헥신산’으로 제품명을 허가 받아, 개정 이전에는 동일 성분으로 생산된 제품의 신규 허가를 위해서 기존 제품명과 2글자 이상을 다르게 해야만 허가가 가능했으나, 규제개선으로, ‘업소명-주성분명[브롬헥신산]-제형’ 순으로 기재하여 허가절차를 진행중입니다.



기대효과

동일성분 제품명을 사용하지 못하는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로 기업간 갈등요인 해소

* 제조·판매증명서(단일국가) → 제조 증명서(생산국) + 판매증명서(판매국)의 분리



개선 전

제품명칭의 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심사기준이 단순히 허가 명칭과 상이하도록만 되어 있어, 동일 성분을 가진 제품이라 하더라도 성분과 관련된 제품명을 쓰지 못하는 등 기업 애로사항 발생

개선 후

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심사기준을 삭제하고, 성분에 대한 최초 허가 업체 이외에도 동일 성분인 경우 성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명 기준을 완화

외국산 직구 상품 중 애완동물사료 검역 간소화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하여 고양이 사료를 구매한 C씨는 검역통관절차가 복잡하여 국내통관이 힘들어, 국내에 이미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는 검역기관의 확인을 생략해 달라는 건의를 하였고, 검역절차 및 비용(20만원)이 과다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열처리 과정이 확인되는 제품은 제외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고려대 교수, C모씨 건의과제



기대효과

해외직구를 통한 애완동물사료 구매시 검역불합격 대상 중 상기제도 시행으로 불합격률이 일정비율(20% 내외) 감소에 따른 민원불만 일정 해소 기대



개선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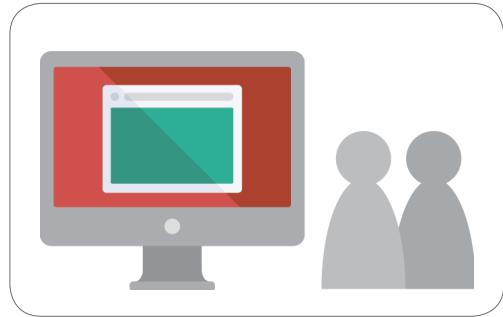
특송화물로 수입되는 애완동물사료는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해외 직구 사이트 등을 통하여 구입한 것이 대부분으로 수출국의 검역증명서나 생산업체의 열처리 증명서를 직접 발급 받기 어려움

개선 후

개인이 수입하는 제품 중 유가공품만이 함유된 애완동물사료 중 펠릿·통조림 등 제조과정 중 열처리 과정이 포함되었음이 확인되는 일부 제품에 대하여, 현물검사를 통해 열처리 과정(72℃에서 15초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 검역제외 처리

축산 종사자 의무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

C는 돼지를 100여마리 키우고 있는 축산 관련업 종사자이다. 축산관련 종사자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나, 집합교육이 의무화되어있어 교육을 듣기 위해 자리를 비워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제도개선으로 인터넷 교육과정을 통해 의무교육 이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편의가 제고되었다.



기대효과

축산 종사자 의무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 교육자 편의 제고



개선 전

축산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이수 시 집합교육 참석 의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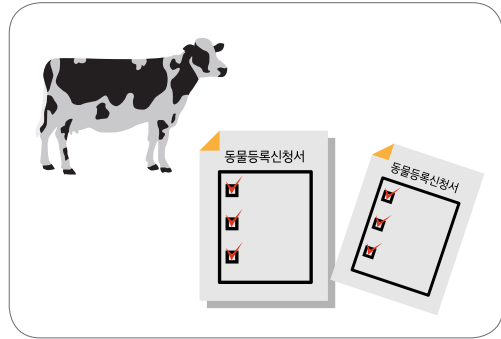


개선 후

인터넷 교육과정을 통한 의무교육 이수 가능

동물등록신청서(변경신청서) 법정양식 개정

A씨는 반려 동물을 등록하고자 하는데 동물등록신청서에 동물 정보입력칸이 1개체만 입력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여러 개체를 동시에 등록하고자 하는데 여러 장을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여러 개체를 동시에 등록할 수 있도록 동물등록신청서 양식이 개정되어 손쉽게 동물을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기대효과

동물등록신청서 양식 개정에 다른
이용자 편의제고



개선 전

동물등록신청서에는 동물 정보입력칸이 1개체만 입력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여러 개체를 동시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여러 장을 작성해야하는 번거로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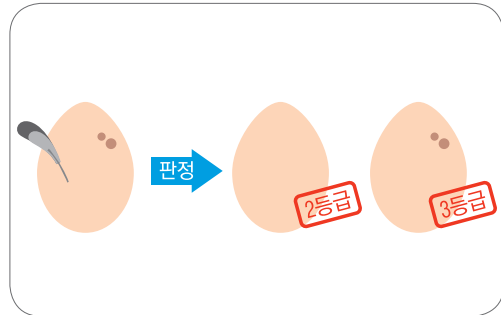


개선 후

여러 개체를 동시에 등록할 수 있도록 동물등록신청서 양식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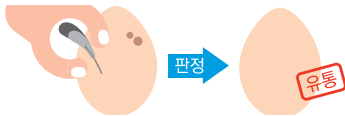
비세척란에 대해서도 등급란 판정 허용

A 업체는 계란을 유통하고 있는 업체이다. A는 소규모 업체로 물을 통한 세척을 하기에는 장비 구입이 부담으로 작용되어 솔을 통한 세척으로 비세척란을 유통하고 있으나, 비세척란은 등급판정을 받지 못해 등급란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그러나 제도개선으로 비세척란도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솔로 이물질 제거한 계란을 기존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기대효과

비세척란의 등급판정이 가능해져 다양한 방법으로 계란 세척이 가능해짐



개선 전

계란 등급제는 세척란에 대해서만 적용되어, 동일 농장 생산제품임에도 등급란이 2~3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판매

개선 후

물 세척을 하지 않은 계란도 이물질을 제거하면 등급을 판정받아 유통할 수 있도록 개선

애완동물용 세정제에 대한 의약품 규정 제외

B는 애완동물용 세정제를 만드는 중소기업이나, 애완동물용 제개가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약사의 자격을 갖춘 제조관리사를 두어야 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제도개선으로 약사 외에 해당분야 졸업자, 경력자 등을 고용할 수 있게되어 약사 고용의 부담이 완화되었다.



기대효과

규제완화에 따른 동물용 욕용제 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개선 전

동물용 샴푸 등 ‘애완동물용 제제’가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약사의 자격을 갖춘 제조관리사를 두어야 함



개선 후

동물 세척용 샴푸 등 욕용제에 대해서는 약사 외에 다양한 자격을 갖춘 자(해당분야 졸업자, 경력자 등)도 제조관리사로 인정하도록 개선

